이전 공공기관 제주 유치 여전히 안갯속

김윤덕 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10~11월 예상"
350개 기관 지방 이전 거론… 제주, 31곳 유치 희망
이 대통령 "공동 성장 위해 지역 이해관계 넘어서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당초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10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한 유치 희망 기관의 제주 배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으로 발표 시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정을 늦춘 것은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당 기관 내부 반발 등 조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기관이 다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서울에 남는 기관을 사실상 '제로'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지자체간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대략 35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산업 연관 효과를 고려한 집적·집중, 그리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 배려 등을 제시해왔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정부 해양 기능 거점이 되면서 해수부 산하 기관 유치가 용이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해온 점을 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관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 핵심 기관을 포함해 31개 기관의 유치 희망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전남광주시나 제주도와 같이 유치 희망 기관이 겹치는 지자체들은 정부 발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 갈등 발생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지방정부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성장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9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도교육청, 제도 정착·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 지원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맞춰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생은 수업 중 휴대 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이달 31일까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학칙(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별 규정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그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여건과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차 이전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 서명 운동

제주도가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내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단체협의회도 농협 하나로마트 등 도내 주요 장소에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합한 서명부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되기 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제주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등에 전달한다.

도는 기후·에너지 대전환과 1차 산업, 관광·문화 등 제주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제주와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이전기관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과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가로이 풀 뜯는 흑소들 25일 제주시 제주마방목지에서 흑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강희만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사례 여전

제주시 최근 5년 36건 적발·302만원 환수조치

최근 5년간 제주시지역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기간에 36건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302만7000원이 환수조치됐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연도별로 2022년 94억7400만원, 2023년 55억4600만원, 2024년 57억7000만원, 2025년 84억1800만원, 2026년 7월 기준 73억6200만원이다.

이 기간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및 환수진행 상황은 2022년 7건·107만3000원, 2023년 13건·118만1000원, 2024년 5건·16만2000원, 2025년 8건·43만8000원, 2026년 7월 기준 3건·17만3000원 등이다. 위반 사례는 부풀려 주유금액을 결제하거나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지역 내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가맹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점검에 나선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차량의 실제 주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한편,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UGAMS)의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한다. 백금탁기자

'신입생 3명' 제주국제대 내년 퇴출 가능성

경영위기대학 또 지정… 재정난 타개책도 제자리

획기적인 대안 없으면 사립대구조개선법 첫 적용

올해 신입생이 3명에 불과한 제주국제대학교가 내년에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이 24일 기준으로 발표한 재정진단 결과에서 제주국제대는 미인증대학에 포함됐고,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다시 지정됐다. 미인증대학은 사실상 '경영위기 대학' 지정으로 이어진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면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며, 지난해 컨설팅에서는 자진 폐교나 강제 폐쇄 등을 권고한 바 있어 획기적인 재정난 타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립대구조개선법에 따라 1순위로 내년 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 퇴출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동원교육학원측이 추진하는 체불임금 해소 등 재정난 타개 대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도 퇴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법인측은 150억원 대에 이르는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제주시내 건물과 서귀포시지역 과수원 등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다 제주국제대가 위치한 영평동 캠퍼스 중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부지 매각도 감독기관인 제주자치도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립대구조개선법은 교육부가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가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입생 모집 정지나 폐교, 통·폐합, 학교법인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등의 과정에서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조조정 첫 대상으로는 경영위기대학으로 이름을 올린 지방사립대가 유력하다는 게 교육계 반응이다.

제주국제대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지정되면서 신입생 수가 지난해 10명에서 올해는 3명에 불과한 상태로, 사실상 대학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향후 제시될 경영컨설팅 결과와 제주국제대 구성원의 대응 방안에 따라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학교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